



[시장동향] 美 분유 대란에 캐나다까지 영향 미쳐

- 외곽지역 거주, 유제품 알레르기 겪는 아이들을 위한 분유 공급 차질



미국 전역에 분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마트 캐나다는 유아용 조제분유 공급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데 이어 분유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면서 분말부터 액상 분유까지 다양한 분유를 확보해 온라인과 매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매업체도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 다른 제조업체를 물색해 분유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도심 외곽지역 소비자들의 분유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유 성분이 유사하고 소화가 쉽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한 분유 브랜드로 교체하거나 가능하면 모유 수유를 늘리고 기증 받은 모유를 활용하거나 유아들의 고형식 섭취를 늘려 분유 부족 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toronto.ctvnews.ca, 5월 11일 >

[업계동향] 美, Z세대 겨냥 유제품 스타트업 발굴 나서

- 원유 50% 이상 활용 혁신적인 유제품 아이디어 공모



미국 뉴욕에서 Z세대를 겨냥한 유제품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

매년 뉴욕주 농업시장부와 뉴욕 유제품 홍보 자문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Milk Launch' 프로젝트는 낙농가, 유업체, 학계, 일반 소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뉴욕에서 생산된 원유 50%를 사용해 새로운 유제품을 개발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소비량을 늘리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영향력 있는 소비층인 10-23세 소비자들을 겨냥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제품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즈, 요거트, 시유, 버터 등 유제품은 물론 유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는 25만 달러(약 3억원) 상당의 상금은 물론 판로 확보 및 확대를 통한 시장 진출의 기회도 연계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통해 유제품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finance.yahoo.com, 5월 10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